

조자룡, 손책, 황충 - 외항매화 기질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

17살 손책은 아버지 손견과 함께 첫 출전을 했다. 하지만, 그 날 아버지 손견은 전쟁에서 죽게 된다. 손책은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가 훗날 강동 81주를 통일하고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소패왕 손책이다.

실리적인 리더가 되기 원하는 외항매화

손견의 아들 손책은 아버지가 죽은 후 원술 밑에서 여강 땅 6강을 격파하고 용맹함을 펼쳤다. 손책은 원술 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유물인 천자의 옥식을 원술에게 맡기고 외숙을 돕는다는 이유로 원술의 군대 3천을 빌려 독립하게 된다. 손책이 독립하자 아버지 손견의 옛 부하였던 장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때 최고의 전략가 외항대나무 기질인 주유가 합류하게 된다. 손책은 강동에 도착했어도 가족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 일을 우선시하는 외항 매화 기질의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손책은 양주태수 유유와 전쟁을 벌였다. 유유에게는 태사자라는 맹장이 있었다. 손책은 맹장을 아끼는 마음에 태사자를 사로잡았지만, 죽이지 않는다. 태사자는 손책의 마음에 감동하여 그의 부하가 되겠다고 맹세한다. 그리고 태사자는 내일 12까지 흩어져 있는 그의 군사 1천명을 모아 돌아오겠다고 맹세한다. 손책은 태사자를 풀어준다. 태사자는 신의를 지킨다. 손책은 21살의 나이에 오나라의 기틀인 강동81주를 평정하고 소패왕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는 외항매화

손책은 조조의 첩자였던 허공과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인다. 하지만, 허공의 식객 3명은 탈출한다. 이 세명의 식객들은 무공을 익혀 손책에게 원수 갚기로 결의한다. 하루는 손책이 사냥을 나갈 때 수행원과 물이꾼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혼자 나가게 된다. 그 때 허공의 식객3명에게 처참한 부상을 당한다.

외항매화 기질인 손책은 극히 연실주의자였다. 그 때 우길도사가 백성들의 환호를 받자 현실주의자였던 손책은 우길도사의 행태에 대해 불쾌하게 여겼다. 그는 우길도사를 사 이비교주로 치부했다. 그리고 우길도사가 민심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하여 그를 죽이게 된다. 손책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우길도사를 죽인다. 강동2교 중에 한명이었던 교시와 결혼한 손책은 결혼 5년만인 약관 26살에 우길도사를 죽인 망령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신경쇠약증에 걸려 몸이 쇠약해져 죽게 된다. 외항매화 기질의 적극적인 추진력과 빠른 결단이 약관 21세에 강동81주를 평정하는 힘을 발휘했지만, 성급한 결단력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충성된 참모 외항매화

유비 옆에는 항상 충성된 조자룡이 함께 했다. 유비는 백성들과 함께 강릉성으로 피난 길에 올랐다. 하지만, 조조군의 습격으로 피난민들은 죽임을 당하고 유비의 아내 미부인과 아들 유선은 행방불명되었다. 경호를 맡았던 조자룡은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유선을 살리기 위해 미부인은 우물 속으로 자결하고 조자룡에게 유선을 맡긴다. 80만 적진 속에서 유선을 안고 싸우는 조자룡의 용맹은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충성심과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 조조의 부하 장수 순우도, 표창의 달인 안명, 활쏘기의 달인 종진형제, 조조에게 명검중의 명검 청홍검을 하사받은 칼잡이 하후은, 맹장 장합을 비롯하여 부장급 장수 50여명이 조자룡을 가로막다 죽음을 당했다.



자신보다 조직이 우선인 외항매화

적벽대전 이후 형주를 차지한 유비는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다. 조자룡이 선봉에서 계양성을 향해 온다는 말을 듣고 계양성을 책임지고 있던 조범은 행복했다. 조범과 조자룡은 의형제를 맺었고, 조범은 일찍 남편을 잃은 자신의 형수가 제가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형수는 조건을 제시했다. 세상에 이름이 높고, 문무를 겸비하고 죽은 남편과 같은 성시를 가진 사람을 원했다. 조범은 조자룡을 만난 이후 조자룡에게 자신의 형수를 소개했다. 하지만, 조자룡은 형수라는 말을 듣고 조범의 따귀를 후려친다. 이유인즉, 형수를 술자리에 부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의형제도 형제인데 어찌 형수를 아내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유비가 천하를 통일하여 평안케 하는 대업을 완성한 후에 자신은 결혼하겠다는 충성스러운 말을 한다.

예의와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외항매화

손권의 여동생이자 유비의 아내인 손부인은 손권이 보낸 어머니의 가짜편지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을 보고 급히 오나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때 유선을 데리고 가게 된다.

성실하게 순찰을 돌던 조자룡은 이상한 마차바퀴 자국을 보고 손부인이 유선을 데리고 배를 탄 사실을 알고 추격한다. 조자룡은 유선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작은 어선을 타고 오나라 배를 추격한다. 조자룡은 배를 가까이 대고 배를 점령하게 된다. 조자룡은 손부인과 다투게 된다. 조자룡은 유선을 두고 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손부인은 끝내 유선을 내어 놓지 않으려 한다. 조자룡 뒤에 장비가 다른 배를 몰고 뒤따라왔다. 그 때까지 유선을 내어 놓지 않던 손부인도 장비의 무식한 태도에 유선을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다.

김종구소장 상담학박사 한국성격검사연구소 <http://www.4gunja.com> 02-334-4443